

일차성 사구체질환의 발생빈도

동아대학교의료원 내과학교실

손영기, 안원석, 김성은, 김기현, 김혜인, 김민숙

Prevalence of Primary Glomerulonephritis – A Single Center Analysis

Young Ki Son, Ki Hyun Kim, Won Suk An, Seong Eun Kim, Ki Hyun Kim, Hye In Kim, Min Sook Kim

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, Dong-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, Busan, Korea

목적: 일차성 사구체질환과 이에 동반된 신증후군의 발생빈도를 알기 위해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방법: 1990년 4월부터 2010년3월까지 만 20년 동안 동아대학교병원에서 검사실 검사 및 신생검에 의하여 일차성사구체신염으로 진단된 1100예를 신생검을 위한 입원 시 검사를 바탕으로 후향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. 병리학적 진단은 WHO classification을 이용하였다.

결과: 이 기간 중 총 1633명의 환자에서 신생검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일차성 사구체신염은 1100예 (67.4%) 이었다. 대상 예는 남자 613예 여자 487예로 남녀 비는 1.31:1, 평균연령은 36±15 (10-81)세 이었다.

병리학적 소견에 의한 빈도는 IgA신병증 (IgAN)이 557예 (50.6%), 미세변화 (MGA) 200예 (18.1%), 초점분절사구체경화증 (FSGS) 168예 (15.2%), 막성사구체신염 (MN) 93예 (8%), 막증식성사구체신염 (MPGN-I) 31예 (2.8%)의 순이었고 2년을 한 기간으로 1기에서 10기까지 20년간의 발생빈도는 IgAN은 34.7%에서 47.8%으로 증가하였고 MGA는 36.1%에서11.9%로 감소하였고 FSGS는 12.5%에서 30.4%로 증가하였고 MN은 6.9%에서 3.2%로 감소하였다. 특발성 신증후군은 375예 (34.1%)이었고 미세변화형신증후군 (MCNS) 155예 (41.3%), FSGS 106예 (28.2%), MN 81예 (21.6%), MPGN-I 24예 (6.4%)였다. 기간별로는 1기와 10기가 각각 MCNS 33.3%, 6.5%, FSGS 9.8%, 12.9%, MN 4.2%, 3.2%, MPGN-I 1.4%, 1.1%로 MCNS는 감소하였고 FSGS는 증가하였다.

IgAN은 총 557예중 51예 (9.1%)에서 신증후군을 동반하였으며 Hass 분류법에 의한 Subclass II와 III가 각각 149예, 155예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Subclass I, IV가 각각 101예, 105예를 보였고 Subclass V도 38예 관찰되었다.

결론: IgAN은 가장 흔한 원발성사구체신염의 원인질환이다. MCNS는 최근 20년동안 점차감소하고 있으며 FSGS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.

Key Words: 신생검, 일차성, 사구체질환

Biopsy, Primary, Glomerulonephritis